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의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귀한 초청과 큰 약속

(요 7:37-39)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초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고와 같은 슬픈 초청도 있고 법원 같은 곳에서 받는 반갑지 않은 초청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청은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1. 초청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본문에 나오는 초청은 보통 사람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초청 일은 명절 끝날, 곧 명절의 절정을 이루는 날입니다(신 16:13). 이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가르치셨습니다. 큰 잔치의 마지막 날, 곧 초막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2. 초청의 대상

대부분의 초청은 아무에게나 오라고 하지 않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청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에는 유대인도 갈 수 있고 이방인도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메데 사람, 파사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 등 별별 나라의 사람이 다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았습다(행 2장).

(2) 목마른 사람

예수님 앞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오지 못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마 5:6)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의로운 것에 목마른 사람만 내게로 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에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예수님 아닌 데서 찾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기쁨을 얻게 됩니다.

3. 초청의 조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자에 대한 요구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오라

‘오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말은 또한 주님께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또 주님께 간다는 말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간다는 말이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모형들이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라만 보면 사는 광야의 구리 뱀이요, 반석의 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요, 생명의 떡이며 영원한 생명 양식이고, 참 성전이며,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구름기둥이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2) 마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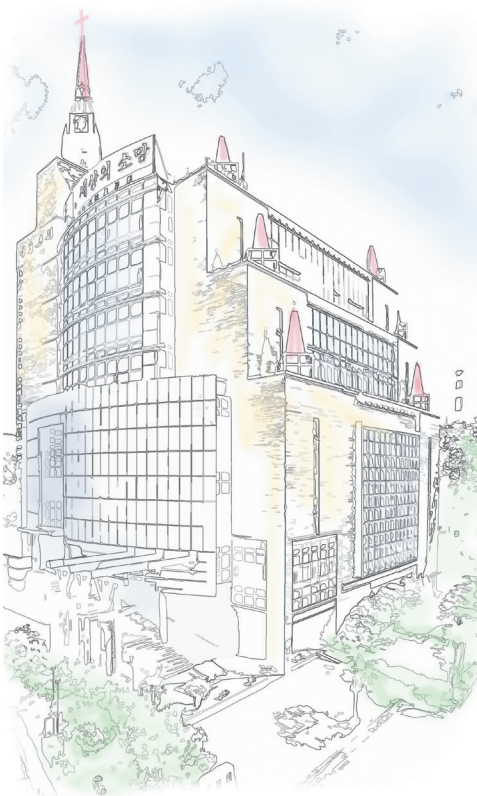
그리스도께 오기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와서 마셔야 됩니다. 샘에서 물을 마시듯 우리는 주님의 배에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의 인격의 일부를 먹어야 됩니다. 같증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같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4. 큰 약속

38절의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요 생수입니다. 생수는 목마른 자나 돈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돈 있는 자나 병든 자나 모두 마셔야 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올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는 말씀은 그의 가장 깊은 인격의 부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볼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귀한 초청에 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

교회 설립 기념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2021 사명자대회가 10월 10(주일)부터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매일 전교인 성경읽기 표 일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매일 자유키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매일 낮 12시, 3분

이상 50일간 기도한다. 특별히 2021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1인 1사랑의 실천을 한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명자의 기도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1.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서울교회가 온전히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되게 하소서.

2.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3.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시며,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4. 이웃을 위하여

코로나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5. 선교지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서울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동역자들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충만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6.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며, 제사장 나라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 수기 및 간증 공모 -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2021 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며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오치열 장로
(2021 사명자대회위원장)

교회 설립 당시부터 교회는 설립 기념 주일 전 50일간을 사명자대회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0일 (주)부터 11월 28일(주)까지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강사는

담임목사님이신 손달의 목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도 장래의 굳건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영적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인, 가정, 교회, 국가의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한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특을 입혀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다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서로 독려하여 참여합시다.



만민에게 전도

과연 무슬림은 위험한 사람들인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5-7)

김종일 교수
(현,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 교수)

이슬람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무서운 종교로서 틀림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슬림 대부분은 자신들이 왜 이슬람을 종교로 가졌는지 알지 못하며, 그들이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는 꾸란에 뭐가 적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 안에 갇혀서 오직 그들이 말하는 잣대와 틀 안에서만 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그 컴패션compassion의 사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물론 테러를 일삼는 소수의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무섭다고, 위험하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보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왜곡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으며,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섭고 혐오스러운 소수의 무슬림이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들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슬람을 위험하다고 경계해야 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것이며,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1. 유럽의 무슬림 게토화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조금씩 늘어나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든 교회가 아닌 유럽의 무슬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소위 게토 현상(편집부 주 : 소수자 집단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구, 빈민가)에 매우 부정적 생각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무슬림 게토화는 사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며 그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와 사회를 가진 유럽인들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교도로서의 무슬림들을 피하고, 다가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었고 생존본능 속에서 그들 자체로 그룹을 만들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무슬림 게토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무슬림들을 유럽에서 보여 주었던 냉대와 멸시로 대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포기할 때일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무슬림 게토화로 만들어진 지금의 유럽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이웃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조건 두려워하며 피하고만 있다가 유럽의 게토화를 다시 국내에도 만들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다가가서 그들이 게토화를 만들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웃 사랑으로 다가가기 포기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더 경계해야 하며, 그렇게 될까를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주님은 오늘 우리나라에 찾아온 무슬림들을 향해서도 다르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36-37).

흥미로운 얘기, 하나 더

보통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은 이슬람의 율법(꾸란)을 철저히 지키

는(혹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하는, 철저한 율법으로 푼푼 뭉쳐서 살아가는 저들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음식에 거의 돼지고기가 섞여 있고,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하람(금기)으로 가득한 곳인 이 땅에 와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율법을 어길지도 모르는 상황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난민으로 들어온 무슬림들 가운데 이런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과 연계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국정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의 공조를 통해서 전부 감시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슬람은 경계해야 하지만, 국내로 들어온 무슬림들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제가 가진 믿음으로도 틀림없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사실 우리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틀리지 않지만,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주치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 기간 : 1월 10일(주)-10월 31일(주)
-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 결과 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 인원수에 맞게 변동)

- 응모 내용
 -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새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 교회 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 응모 방법 :
 - 흑백, 컬러 모두 가능
 -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 제출 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0. 2. 토요일 '사랑의 쌀' 조찬기도회와 몽골 국제올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경건회를 인도했다.

■ 떡 제공 : 조성식 장로 · 김영식 권사 가정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2021 성경암송대회

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2021 성경암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0월 31일(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임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 일정

구분	일시	교육과목	강사
2차 교육	10월 3일(주)	예배모범과 주일성수	박미라 전도사
	10월 10일(주)	한국교회사	조원영 목사
	10월 17일(주)	총회헌법과 교회규정	당회(기획위원회)
	10월 24일(주)	교회행정 및 회계처리 과제물 제출일 (10월 25일)	당회(기획위원회)
면접 및 시험	11월 5일, 6일, 7일 중 택일	당회고시 및 당회원 면접	당 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4일	월	막 4-5		마 1-8	
10월5일	화	막 6-7		사 1-7	
10월6일	수	막 8-9		사 8-14	
10월7일	목	막 10-11		사 15-26	
10월8일	금	막 12-13		사 27-33	
10월9일	토	막 14		사 34-41	
10월10일	주일	막 15-16		사 42-49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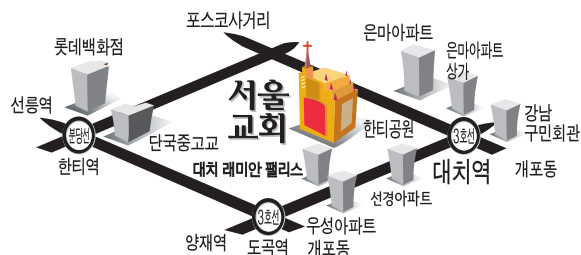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0월 10일(주) 시작되는 2021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말씀 묵상과 기도회로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손달의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